



궁·금·함·니·다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의 '전문가 상담코너'에 게재된 질문과 답변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 사 양 ●●

Q 저희 농장에서 최근에 나타난 증상으로 주로 임신 말기에 사료 섭취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후보돈 중심으로 유산이나 조산을 하고, 또 정상적으로 낳더라도 새끼들은 빈약하고 모돈의 무유증도 심심찮게 나타나서 제대로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사기관에 의뢰를 했더니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PRRS 말고 달리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가검물을 검사기관에 보낼 때 어떤 것을 보내느냐가 중요하고 검사기관에서도 어떤 것을 목적으로 검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와 농장 내 상황에 맞춰 실험실 검사는 단지 참조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사람과 같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품고(history taking)를 들을 수 없어 전문가가 현지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점검도 하고, 부검 및 샘플링 채취도 필요한 것을 골라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보돈 중심으로 유산이 많다고 하는데 PRRS도 개체에 따라 음성일수도 양성일 수도, 잠복기

나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검사 기관의 표준 항원이 다르거나 방법, 판독 기준 등도 통일이 안 된 상태입니다.

PPV 나 일본뇌염(희박하지만), SIV(돼지인플루엔자), 그리고 사양관리상 과비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돈사내 환경문제와 일반 관리 상태 등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Q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임신 말기의 후보돈들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겨울에 주던 사료량을 조금 더 줄여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후보돈들은 말기에 자기 몸 상태 변화에 대해 경산돈 보다 아주 예민한 것입니다.

특히 환경변화나 어떤 호흡기질환에 감염되었을 때에도 자궁의 압박에 대한 늑막이나 폐조직의 압박이나 부담 때문에 식욕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온은 정상인지, 태동은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상적일 경우에는 최소한 영양제라도 투여해야하고(생시체중 문제), 열이 높을 경우에는 염증성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정성이 높은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해야만 합니다.

사료량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말기인 경우에 갑자기 낮추게 되면 생시체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깐요. 또 요즈음 백신은 독소이드함 유 오일 백신들의 스트레스가 많은 편으로 접종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PED도 저산차나 후보돈 먼저 식육부진에 이어 발병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Q 톱밥 돈사에서 비육돈 사육시 다른 돈사에 비해 톱밥 돈사에서 피부병 발생빈도가 높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사특성상 그런 것인지, 모돈과 자돈에서 구충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자는 고온기 모기에 의해 그럴 수도 있다는데 그럴 수 있는지요?

A <유재일 한국양돈컨설팅그룹 위원장>
피부병이 많이 발생하는 톱밥 돈사들을 보면 반드시 톱밥이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질면 돼지 몸이 더럽혀진 경우였습니다.

톱밥 돈사에서는 공기중의 습도관리도 중요하지만 톱밥의 습도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톱밥이 지나치게 건조하면 먼지가 심하게 일어나고 비산박테리아 축적도 역시 높아집니다. 질은 경우는 혐기성 발효가 일어나서 악취가 심해지며 호혐기성 미생물의 발생이 활발해 지고 톱밥의 교체회수와 양도 늘어나는 등 문제에 문제가 고기를 물고 일어납니다.

톱밥의 적정습도는 약 60~70% 범위로 보면 됩니다. 톱밥의 습도가 이 상태가 되면 돼지가 누웠다가 일어난 자리에 약간의 몸도장이 찍힙니다. 습도가 이 상태가 되면 먼지는 물론 뜨지 않으며 톱밥내에서는 호기성 발효가 왕성하게 지속되고, 저습을 좋아하는 유해미생물의 발생도 현

저히 억제됩니다.

질 병

Q 80일령에 돼지들에게서 문제가 생겼다. 수의사님에게 문의하여 해부를 하여보니 한 마리는 폐가 부어있고 폐가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고 임파절도 부어 있었구요. 한 마리는 살모넬라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PRRS와 살모넬라 동시 감염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는 엔로프록사신으로 주사하였고 사료에는 카바독스 구연산을 첨가하여 치료 중입니다. 앞으로의 치료 방법과 소독 방법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의 드립니다.

A <채찬희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본인 생각에는 돼지 쉼코바이러스 또는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PRRS) 감염과 2차적인 살모넬라증 감염이 복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장에서 현재 폐사되는 육성돈이 호흡기를 동반 유무가 중요합니다. 만약 호흡기를 동반하고 있으면 PRRS 백신을 6주령이세 120일령 사이의 전체돼지에게 접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프티오포 계통의 항생제 와 해열제를 동시에 증상이 있는 돼지에게 접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유자돈 사료에는 유기산제를 첨가하여 주십시오. 유기산제는 살모넬라균의 감염을 예방하여 줍니다. **양돈**

